

## 장로, 집사, 성도, 모두 천주교 용어

-할레와<sup>1)</sup> 소유<sup>所有</sup>도 천주교의 용어/“나의 소유는 다 너의 것” -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畧,1635景教堂 散梓.

1. 애유락艾儒畧(Giulio Aleni 1582-1649) 신부가 아마도 경교비문을 본 후에 저술한 성경 이야기 책이다. 경교당에서 발행하였다. 이단을 염려하는 교회 당국에서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이 책은 성경과 성전을 아우르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한 편태가 5천대이며, 그 병사들이 6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 책에 대하여, 배현숙은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한국교회사 논문집 I >, 1984 한국교회사연구소 p. 6에서, “규장각에서 1782(정조6년)에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으로 이봉移奉된 도서목록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벽 성조도 이 문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성교요지>에 반영한 그 흔적(특히 29장)을 볼 수 있다. 정약종의 <주교요지>에도 천주강생언행기략 1권에 있는 상품천신과, 8권 升天성소(12)에서 거룩한 발자국 흔적을 언급

1) 성경직해 9권, 야소성명침례에서, 할손지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잠에서는 할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 문헌에서 할손과 할레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 문화권에서 이 용어들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용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레의 용어는 만물시원에서도 계속된다.(소순태 교수의 견해 참조).

하는 것으로 보아, 정약종도 이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서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주강생언행기략은 만일락萬日畧(=VANGELO, 복음) 聖經의 대략이다. 만일락경에 대한 설명으로, 造物主께서 기록하게 가르치신 고경古經과 신경新經이 있다. 고경은 천주께서 강생하시기전에 옛 성인들에게 보세溥世에 전하도록 계시啓示하신 것으로서 장차 강생하실 것을 상세히 예견한 것이다. 신경은 천주강생 후에 종도들과 성인들이 기록자들이다. 만일락은 (번)역언하면 호보好報 복음福音이란 뜻으로서, 즉 4 기록한 기록으로 오주 야소께서 강생하시어 33년간 세상에 계시는 동안 구세속인하시고, 승천하시어 천로를 연 보배로운 믿음의 기록 信經신경이다. 4성의 기록은 후에 여러 교종教宗과 성교공회의 인준을 받아, 天主께서 진전자眞典者이심을 명시하였다. 4성인은 마두瑪竇, 마이가瑪爾譚, 로가路加, 약망若望인데, 마두와 약망은 종도宗徒이고, 마이가와 로가는 성도聖徒이다.

<이후 본문에 보면, 8권13의 성도聖徒 120 餘人(행전1,15)이 만국방언萬國方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여, 지금 개신교의 용어로 알고 있는 장로長老(4권3), 집사執事(5권5,7) 등도 다 천주교 용어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사도행전 15, 6의 사도들과 원로들에 대하여, 바씨는 宗徒與老輩라 하였고, 이를 베낀 모리슨(1823)

은 諸使徒及老輩로, 1852 대표역본은???, 1855委辦역은 使徒長老, 현 천주교 홍콩본에서는 宗徒和長老로 표기하고 있다.)> =====

3. 마두는 여덕아如德亞 본국문으로 썼고, 3 성인은 열국列國에 통용되는 액제아阨濟亞<阨(勒)濟亞(ejiya, =Grecia)> 국문으로 썼는데, 지금 쓰고 있는 라마羅瑪문자이다. 후에 열라니모熱羅尼莫(예로니모) 성인이 달마속達瑪肅(damasu, 다마소) 교종敎宗의 뜻을 받들어 번역하여, 태서 제국泰西諸國에 통용誦讀되게 하였다. 4성인의 상징은 마두의 인상人像(오주강생의 人性지사)과 마이가의 사상獅像(성 약한의 교야고성을 뜻하는), 로가의 우상牛像(봉제천주 지례에 바치던 희생용)과 약망의 악상鵞(물수리악)像(독수리로 서국어로 아기랄능亞己辣能 =aquila처럼 하늘에서 우는=천주성을 표시) 이다. 이를 두고 성 오사정奧斯定(aosiding)은 정교호음으로서 옛적에 복지福地에 있던 4대하를 뜻한다고 하였다. 또 옛 성현(古賢) 슬도락瑟都畧(sedulue?)은 만일락경은 태양이 우주를 넓게 비추는 것과 같고, 기록한 4성은 4계四季와 같다고 하였다. 마두 복음에서 耶穌는 천주강생명호로서, 역언하면 구세자란 뜻이며, 고경에 예언되어 있는 강생구세지주라고 밝히고 있다. 마이는 야소께서 모든 영적靈蹟을 베푸시는 초월인신超越人神의 능력자로서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한다. 로가는 오주야소께서 성훈과 죄를 사하심을 전하는 강세속인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 약망은 천주의 본성에 대하여, 무시로부터 파덕륙(성부)에서 탄생하신 천주자

이시며, 참된 사람으로서 천지의 大主시라고 한다.

4. 오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몸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전해주신 것을 친견문자親見聞者들인 4성이 급히 기록한 것으로 오류가 없다(無遺謬). 上主의 뜻은(之義) 지심무궁 至深無窮하여, 강생재세하신 오묘한 언행을 다 수록할 수 없어, 약망은 “일일이 다 기록할 양이면, 6합(=천지4방)이 넓다하여도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내용의 원문을 정리하여 보면,

\* 만일락경설(萬日畧 wanrilue=vangelo, 好報 福音)  
造物主聖教 有古經 有新經 古經迺 天主未降生啓示聖 令傳溥世 新經迺 天主降生後 宗徒與 並時聖人紀錄者 中云만일락(譯言好報 福音)經. 卽4聖紀 오주 야소 강세 33년 救世贖人 以至升天 誠開天路之寶信經也 錄于4聖 教宗 聖教公會準定 教宗準定 四聖所紀 瑪竇 瑪爾哥 路加 若望 聖徒(마이가 로가) 마두=如德亞本國文 3聖則取列國通用之 阨(勒)濟亞(ejiya,=Grecia)國文 今所行者則라마文字. 성인熱羅尼莫 奉聖달마속教宗 泰西諸國誦讀 上主./1권 복사본 참조.

\*권3 山中聖訓(1), 천주경(cf. Mat.6,9-).

천주경/在天我等父者 我等願爾名見聖 爾國臨格 爾旨承行於地 如於天焉 我等望爾今日與我 我日用糧 而赦我債 如我亦赦負我債者 又不我許陷於誘惑 乃救我於凶惡 亞孟.

人能默契斯旨 又赦人罪 則在天爾父 亦赦爾罪 爾不赦人 必不蒙赦爾矣.

교요해략教要解畧과 거의 동시에 이 천주경이 나왔고, 1700년경에 장 바세 신부는 이 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모리슨 목사는 바세본을 그대로 옮기다시피 한 것을, 다음의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천주경에 대한 여러 판본의 비교표

교요해략1615년	천주강생언행기 략 1635년	장바세 신부 영 국본 1700년경	모리슨 목사 1823년본	현재 홍콩 중국 본
在天我等父者	在天我等父者	我等父在天者	我等父在天者	我們的天父
我等願爾名見聖 爾國臨格	我等願爾名見聖 爾國臨格	我等願尔名致聖 尔國臨格	爾名成聖 爾王就至	願你的名受顯揚 願你的國來臨
爾旨承行於地	爾旨承行於地	尔旨致成于地	爾旨成行於地	願你的旨意奉行 在人間
如於天焉	如於天焉	如于天地(焉/음)	如於天焉	如同在天上
我等望爾今日 與我	我等望爾今日與 我	今日與我	賜我等	求你今天賞給我 們
我日用糧	我日用糧	養體(体음?)之糧	以日用糧	日用的食糧
而免我債.	而赦我債	而免我債	赦我負債	求你寬恕我們的 罪過
如我亦免負我 債者	如我亦赦負我債 者	如我亦免負我債 者	如我赦負債我等 者也	如同我們寬恕別 人一樣
又不我許陷於誘 惑	又不我許陷於誘 惑	又不我引于誘惑	勿由我等入誘惑	不要讓我們陷於 誘惑
乃救我於凶惡	乃救我於凶惡	乃救我于凶惡	乃救我等出凶惡	但救我們免於凶 惡
亞孟	亞孟	亞孟	亞孟 亞門	亞孟

이와같이 산중성훈에 나오는 마태오 복음의 주님의 기도와 그 후의 구절(용서에 대한)을 보면, 천주강생언행기략과 교요해략은 글자 몇 개만 다를 뿐이고, 바세 신부의 성경본도 여기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세본을 모리

슨 목사가 그대로 보고 옮겨 적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재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원천은 4복음의 종합본(Diatessaron, Harmony)인 이 천주강생언행기락임이 확인된다.

\* 論蕩子改過(제16) 루카 15,11-32. 탕자의 비유.

야소우왈 昔有生2子者 蕩遊遠方 慾色無度 豕食之菓 始大悔曰 我父僕役 我獲罪於천주 取鮮衣衣之 長子從外來 何宰犢(송아지독)而饗也 **吾所有 皆爾有也(나의 소유는 다 너의 것이다.)** 爾弟久出而今歸 則死而復生(奴于鬼魔 而靈魂無德 且痛悔來歸 謙畢求宥(용서할유)).

\*6권 都城罰樹警人(제13) 마태 21, 18-19. 무화과

나무를 저주. (cf.菓咒葉肥/성교요지 29, 14)

次日야소 自백대니아入都城 見路旁肥菓樹(feiguo, fico = 무화과) 葉其茂 往覓(찾을떡)恥(귀처질척)之 무1寔(진실식)者 汝後永不實矣 言訖(끝낼흘)而樹遂稿(噫 樹木無靈之物 政吾主借此以警여덕아國/ 침부 복사본 참조).

시기적으로 볼 때, 천주강생 언행기락(1635년)을 참고하면서 바세 신부의 최초 한문본 성경(1700년경)이 번역되었고, 바세 신부의 성경인 영국본을 거의 그대로 베끼면서 모리슨 목사의 성경이 출판(1822년?)되었다. 이벽 성조는 바세 신부의 번역본(1700년경 필사본)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개신교의 성경도 늦게 출판되어 참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의 내용을 보면 천주강생언행기략을 참고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를 비과수로 표현한 천주강생언행기략의 내용이 성교요지 29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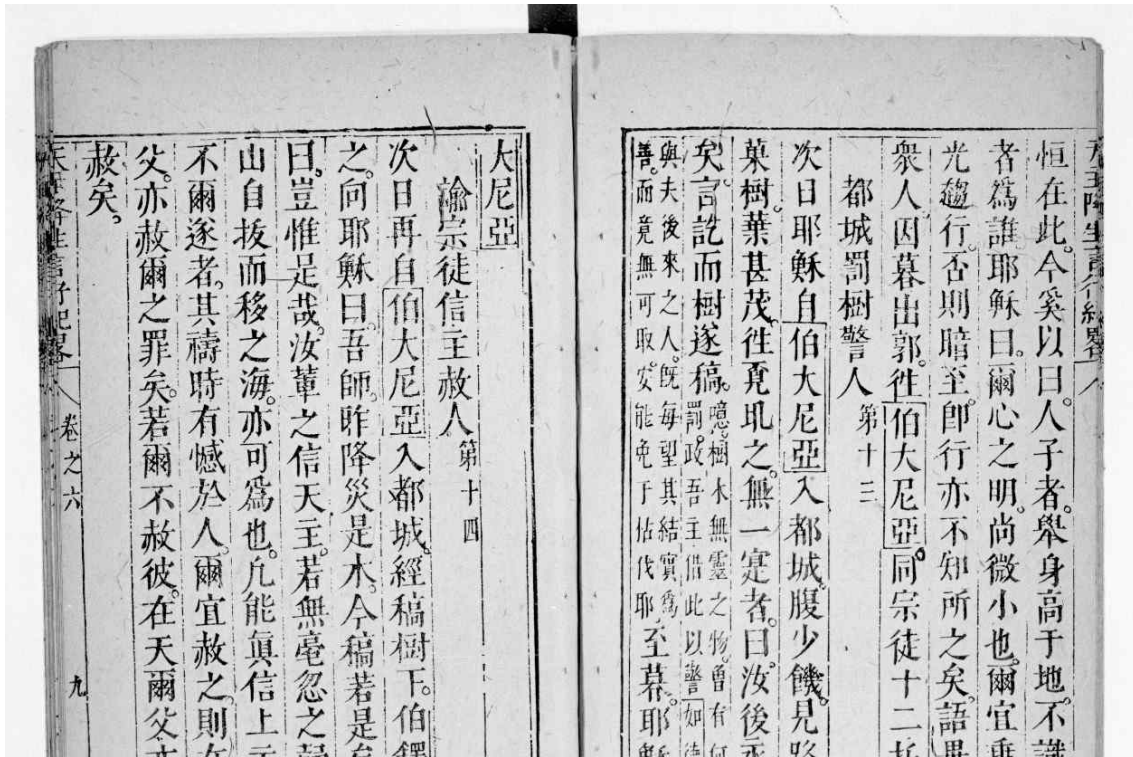
耶穌會中 同學 畢方濟, 陽瑪諾, 伏如望 共訂

天主降生救世後 1635년

崇禎8祀 歲次 乙亥 孟秋(음력7월) 晉江 景教堂 散梓. 끝.

2017. 6. 13. 김학렬 약망 신부.





\* 천주강생언행기략 원문과 그 설명에 대하여 소순태의 아래 주소의 글을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